

● 학습 목표

작품에서 보는 이나 말하는 이의 관점에 주목하여 작품을 수용할 수 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누가 이야기하는가에 따라 같은 사건인데도 다르게 전달된다고 느낀 적이 있지요? 문학 작품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나 생각 등을 전달하는 이, 사건이나 인물 등을 바라보는 이에 따라 작품의 내용과 주제, 분위기 등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보는 이나 말하는 이가 누구이며, 어떤 관점에서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시와 소설에서 작품의 세계를 누가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이를 통해 문학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하는 능력을 길러 봅시다.



● 단원 한눈에 보기

(1) 엄마 걱정 문학

- 시 <엄마 걱정>(기형도) 감상하기
- 화자의 정서와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 파악하기
- 화자를 달리하여 <엄마 걱정> 다시 쓰기

(2) 동백꽃 문학

- 소설 <동백꽃>(김유정) 감상하기
- 서술자의 특성이 작품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
- 서술자를 달리하여 <동백꽃> 다시 쓰기

✓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우리가 엮어 만든 시집

✓ 더 읽어 보기

- ① 시 <나룻배와 행인>(한용운)
- ② 만화 <보행>(라일라)

● 단원 핵심 역량

문화 향유
역량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자기 점검하기

- '화자'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 자신이 읽었던 소설을 떠올려 봅시다. 그 소설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는 누구인가요?



나의 학습 목표 세우기

- 이 단원에서 나는



(1) 엄마 걱정

학습 목표 화자에 주목하여 시를 감상할 수 있다.

소단원 열기

❶ 다음 시에서 ㉠은 누구일까요? 빈칸에 써 봅시다.

난 꼬마도 될 수 있고
엄청난 거인도 될 수 있다.
아파트 벽쯤 단숨에 오르고
물 위로 벌렁 누울 수도 있다.
하지만 난
혼자서는 안 논다.
꼭꼭 누구랑 같이 논다.
누구가 누구냐?
바로 너지 누구야.
언제나 너를 따라
함께 노는 ㉠.
그럼 난 누구게?

- 문삼석, < >

2 집에 혼자 있었던 경험을 떠올려 봅시다.

언제 있었던 일인가요?

그때 무엇을 했나요?

그때 기분은 어땠나요?



다음은 엄마를 기다리던 유년 시절의 기억을 담은 시입니다. 이 시의 화자는 누구인지, 화자의 상황과 정서는 어떠한지 등을 생각하며 감상해 봅시다.

엄마 걱정 기형도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 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앉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 〈입속의 검은 잎〉

- 유년 나이가 어린 때.
- 윗목 온돌방에서 아궁이로부터 먼 쪽의 방바닥. 불길이 잘 달지 않아 아랫목보다 상대적으로 차가운 쪽이다.



기형도(1960~1989)

시인. 유년의 기억이나 도시인들의 삶을 그린 개성적인 시들을 썼습니다.
저서에 유고 시집 《입속의 검은 잎》, 산문집 《짧은 여행의 기록》 등이 있습니다.





학습 활동

내용 학습

1 이 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봅시다.

1연

유년 시절

엄마가 시장에 감.

2연

2 이 시에서 어떤 표현이 인상 깊었나요? 그 표현에 관해 짝과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예
“해는 시든 지 오래”라는 표현이
인상 깊었어. 해가 지는 것을 시든다고
표현한 것이 독특했거든. 그리고
시든 열무와, 열무를 파느라 지친
엄마의 모습이 상상돼서 마음 아팠어.



목표 학습



시에서 말하는 이를 '화자' 또는 '시적 화자'라고 해요.

1 화자에 주목하여 이 시를 감상해 봅시다.

(1) 이 시의 화자는 누구인가요?

(2) 다음 시구를 통해 알 수 있는 화자의 정서를 말해 봅시다.

-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 어둡고 무서워
- 빈방에 혼자 었드려 훌쩍거리던

(3) 다음을 참고하여 화자가 “내 유년의 윗목”이라고 표현한 까닭이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

★ 윗목[원-] (명사)

온돌방에서 아궁이로부터 먼 쪽의 방바닥. 불길이 잘 닿지 않아 아랫목보다 상대적으로 차가운 쪽이다.

(4) (1)~(3)의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이 시의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



2 화자를 달리하여 <엄마 걱정>을 다시 써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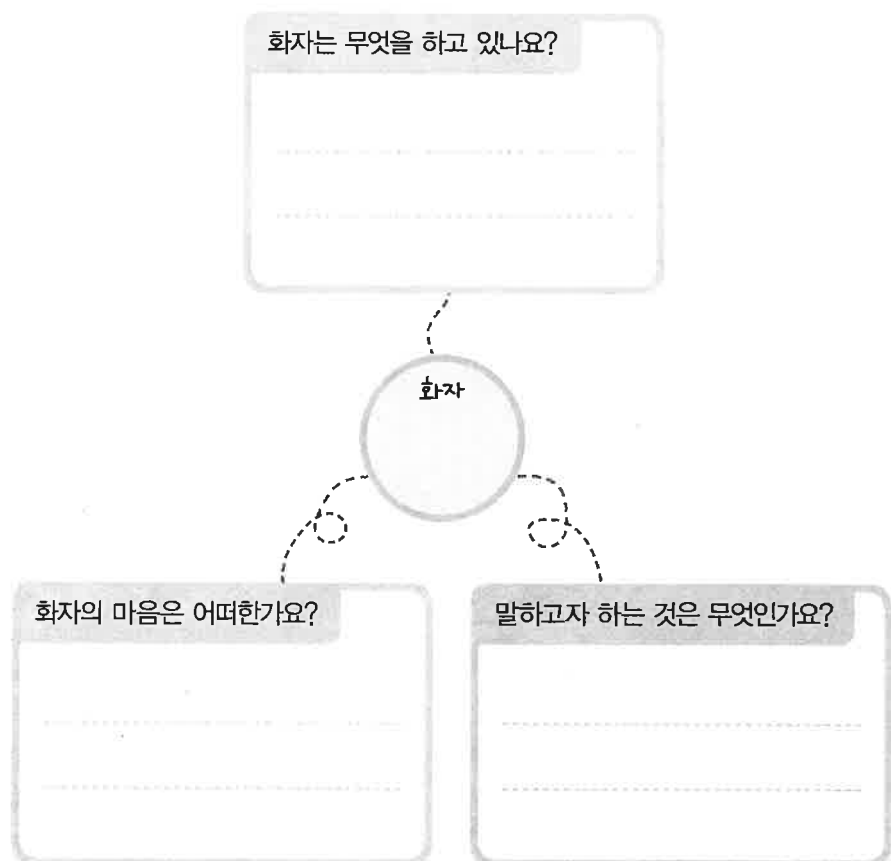
(1) 다음을 참고하여 시의 화자를 정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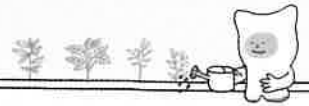
- <엄마 걱정>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이나 사물을 화자로 정할 수 있다.
예) 엄마, 열무, 비 등
- <엄마 걱정>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나 사물을 화자로 정할 수 있다.
예) '나의 친구, 옆집 사람, 달 등

♥ 내가 정한 화자: _____

♥ 그렇게 정한 까닭: _____

(2) 화자를 중심으로 하여 시를 구상해 봅시다.





(3) (1)과 (2)의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시를 써 봅시다.

제목



- 〈엄마 걱정〉과 다시 쓴 시를 비교하거나, 자신의 시와 짝의 시를 비교하며 감상을 나눌 수 있어요.
- 시의 화자, 정서, 주제, 분위기 등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4) 완성한 시를 짝과 바꾸어 읽고, 감상을 나누어 봅시다.



3 화자에 주목하여 아래 활동을 해 봅시다.

딸기

이재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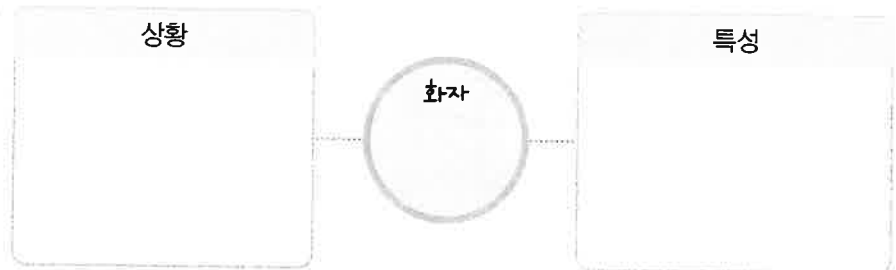
오십 리 길 짐차에 실려 왔어유
 멀미도 가시기 전에
 낮선 거리 싸댕기면서
 지 몸 살 사람 찾고 있지유
 목마름은 이냥저냥 전될 수 있슈
 헛다, 불기짝 쥐어뜯으며
 살결이 거칠다느니
 단맛이 무르다느니 허진 말어유
 지 몸이 그냥 지 몸인가유

이만한 몸뎡이 하나 살리기 위해서도
 하느님 손 농부 손 고루 땀어유
 그러니께 지폐 한 장으루다
 우리 식구 사돈에 팔춘까지 두루 사
 가는 선상님들
 몸값이나 후하게 쳐주셔야겠슈

- 《주름 속의 나를 다린다》



(1) 화자를 중심으로 하여 이 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봅시다.



(2) 이 시의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화자를 (1)과 같이 설정한 까닭이 무엇인지 짝과 이야기해 봅시다.



소단원 달기



-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화자에 관해 알게 된 내용을 짝과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
시에서 말하는 이를
화자라고 해. 화자에 주목하여
시를 감상하면 시를 더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어.

- 자신의 학습 태도를 돌아보고, 스스로 평가해 봅시다.



아래 그림의 각 팻말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보기>에서 골라 봅시다.

보기

투스 단 삼 축 결레

